

새 책

▶푸른수염의 첫번째 아내(하성란 지음)=프랑스 전래동화 '블루비어드'를 재해석해 설화 속 비밀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채워 넣은 표제작 '푸른수염의 첫번째 아내'를 비롯해 경관 총기 난사 사건을 다룬 '파리' 등 11편의 소설이 담겼다. 작가는 이번 리마스터판을 다시금 매만지면서 "지금은 쓰기 꺼려지는 단어와 상황들로 그 시절을 돌이켜볼 수도 있었다"면서 '시간의 힘'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창비, 1만4000원.



▶겨울이 지나간 세계(아사다 지로 지음, 이선희 옮김)=일본 문단에서 '탁월한 이야기꾼'으로 손꼽히는 작가의 신작이다. 정년퇴직을 맞이한 예순다섯 살의 다케와키는 송별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뇌출혈로 쓰러진다. 병실에 누워있던 다케와키에게 미스터리한 방문자들이 찾아오고, 기묘한 방문자들과 배회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다케와키의 비극적인 과거, 불행으로 얼룩진 인생이 드러난다. 부키, 1만6000원.



▶엄마가 먹었던 음식을 내가 먹네(홍명진 지음)=책은 '나'를 키운 음식을 매개로 인간의 몸과 정신에 밴 그리움을 그려낸다. 뼈째로 먹는 가자미, 열두 가지 맛을 내는 곱새고기, 남들이 잘 먹지 않는 미역귀 하나하나의 음식에는 어머니와 가족, 가난의 냄새가 배어있다. 작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에 새겨진, 오감이 기억하는 음식이 그림자"고 말한다. 걷는사람, 1만5000원.



▶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한국일보 우리시대의 마이너리티팀 지음)=한국 사회에서 소수자의 삶을 취재해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극명히 짚어낸 책이다.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전통적인 소수자 집단 외에 남성 보육교사, 중도입국 청소년, 보호종료 청소년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이들을 발굴해 소수자 범주를 잡았다. 북룸마, 1만7000원.



▶이수현, 1월의 햇살(장현정 지음)=일본 유학 중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다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난지 어느덧 20년.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의인 이수현의 20주기를 맞아 그의 삶을 기록한 평전을 기획했고, 생전 이수현이 유학을 떠나기 전 인연을 맺은 작가가 1년에 걸친 자료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집필한 책이다. 호밀밭, 1만5000원.



▶움직임에 중력을 더하라(조안 베르니코스 지음, 윤혜영 옮김)=우주비행사의 건강연구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우주과학자이자 저자는 중력과 노화, 앉아있는 생활 방식과 질병, 중력 운동과 건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평생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 프로그램을 책에 담았다. 한문화, 1만3000원. 오온지기자 ejoh@ihalla.com



베트남에 간 그들은 카메라를 내려놔다

이길보라·곽소진 등 '기억의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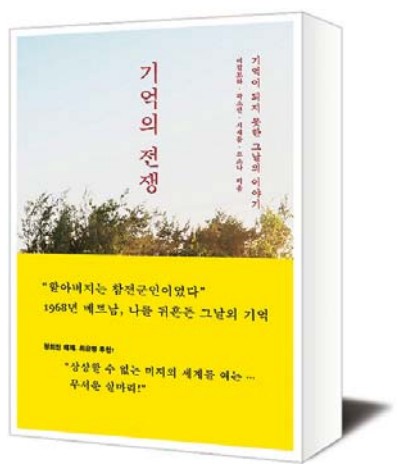
동명 영화 제작 5년여 여정 평가기행서 시민법정까지

그곳에도 제주4·3의 광풍을 겪은 이 땅처럼 이유도 모른 채 같은 날 한꺼번에 희생된 영혼들이 있었다. 매년 음력설이 되면 한 집 걸러 한 집씩 제사를 지낸다. 1968년 '구정 대공세'로 불린 대규모 군사 작전의 영향이다. 베트남 전쟁 이야기다.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기억의 전쟁'에 얽힌 5년여의 여정이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 감독(이길보라), 두 명의 프로듀서(서세륜, 조소나), 촬영 감독(곽소진) 등 네 명이 공동 집필한 '기억의 전쟁'이다.

인이었던 할아버지를 둔 감독의 개인적 서사에서 출발한 영화는 전쟁과 학살, 국가 폭력의 문제와 만나게 된다.

제작진은 처음 베트남 중부의 학살 현장에 도착해 카메라를 내려놔다. 대신 그들은 꽃과 향을 올리고, 절을 했다. 카메라는 위령제를 끝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다음에 들뜬다는 바람을 오랫동안 찍었다.

영화에는 다낭에서 가까스로 학살을 면했고 이젠 시각장애인이 된 응우옌탄 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중 시민평화법정의 증언자로 방한했던 응우옌탄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고, 학살에 가담한 참전군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날 용기를 내서 단상에 올라



은 참전군인은 없었지만 10대 중 학생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휴정 시간에 증언자들에게 직접 쓴 편지와 선물을 건네며 "저희가 앞으로 한국 시민들에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응우옌탄은 별도 인터뷰에서 이 장면에 대해 묻자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훗날 성장한 뒤에도 베트남 전쟁의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투쟁에 나섰을 때 계속 응원해달라는 말을 덧붙였다. 북하우스, 1만65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인생의 한 번쯤 그분처럼 광야로 나간다면

김현의 '질문의 시간-40일을 그와 함께'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올해 사순절 기간이다. 기독교 최대 축일인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으로 사순절 시기엔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등을 통해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라고 말한다.

서양고전문헌학자인 김현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2017년 3월 1일 사순절이 시작될 때 그분으로 정하는 예수를 생각하며 매일 글을 썼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받은 주간을 마지막으로 그해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 아침이 밝았다. 그날은 마침 4월 16일이었다. 그는 2014년 그날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가슴 아프게, 사무치게 떠올랐다고 했다.

불현듯 황무지 들뜬으로 향했던 그분처럼 무엇이 좋은 삶인지를 묻고 또 물었다는 그가 4년 전의 사순절 노트를 꺼냈다. '40일을 그와 함께'란 부제를 단 '질문의 시간'이다. '질문의 시간'은 첫째 날, 제의 수요일'에서 '마흔째 날, 토요일'까지 차례대로 흘러간다. 그 여정을 통해 우리 고통 끝에 희망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걸 떠올리게 된다.

첫째 날, 나이 서른에 가족과 친구를 떠나 아무도 없는 곳,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있는 곳으로 나갔던 이스라엘의 한 청년과 마주한다. 첫째 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임을 알기에 '재의 수요일'이란 이름이 붙었다. 저자는 "인생의 한 번쯤 그때 그가 광야에 섰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고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열째 날, 토요일'에는 욕망을 버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복을 받

이 책 오승철 신작 시조집

시조의 종가로 향하며 평처럼 운다

제주 오승철 시인이 신작 시조집 '길 하나 둘러세우고'를 묶으며 꺼내 놓은 건 단시조였다. 그는 그것을 "시조의 종가"로 칭하며 "허랑방탕, 여기까지 왔는 왔다"고 했다. 겸양의 표현이면서 이제야말로 새길에 들어서듯이 시조의 본령에 다가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단시조로 엮은 신작 시조집 '길 하나 둘러세우고'를 펴낸 제주 오승철 시인.

저 아득한 시간을 넘고 넘으며 지금까지 살아남은 시조는 3장 6구 12음보의 율격을 갖춘 우리의 전통 정형시를 일컫는다. 정해진 틀 안에서 부단히 언어를 깎고 다듬는 노고 끝에 완성되는 것이 본래의 시조라고 할 수 있겠다.

수다스러움 대신 아끼고 아낀 시어를 펼쳐 놓겠다는 이번 시조집은 '다시, 봄'에서 시작해 '대설'로 끝을 맺는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사계절의 순환처럼 제주 땅을 배경으로 시조가 탄생하고 생명력을 이어가는 과정도 그렇지 않겠느냐고 노래한다.

첫머리에 놓인 '다시, 봄'은 다시 우리의 시조로 향하는 진득한 걸음은 은유하는 듯 보인다. "허랑방탕 봄 한철 핑소리 들려 놓고/ 여름 가을 겨울을 묵언수행

중이다/ 날더러 푸른 이 허길 또 버티란 것이냐"고 했는데, 시 작업을 둘러싼 고행의 모습 그대로다. 새 생명을 품고 오는 봄의 기운은 수시로 출몰한다. "무슨 일 일어날 지 모르니까,/ 봄이다"('그러니까, 봄')라고 했을 때, 우리 거기에서 두렵음과 설렘을 동시에 느낀다. 봄은 제주 사람들에게 4:3이 연상되는 시기이면서 한편으론 창작자의 심적 부담을 드러내는 고통의 계절이다. 봄은 때때로 꽃으로 치환된다. 한라산 남쪽에 분포하는 기생성 한해살이풀인 '야고'를 제목으로 붙인 시에선 "여름월/내 노동은/ 중 하나 만드는 일"이라며 꽃을 피워내는 '산고'를 읊는다.



단시조 모은 '길 하나...' '다시, 봄'에서 '대설'까지 순환의 계절 속 산고 담야

"성산포 가는 길" "무심한 어느 저녁에 이 악물듯 눈이 온다"는 이 시곡의 제주가 떠오르는 '대설'로 마무리되는 시조집 곳곳에는 그의 첫 창작집 '개뉘아'부터 '시그니처'처럼 등장해온 핑이 울어 쟁다. 그것들은 "절 같은 섬에 와서도/ 시끄러워 못 살겠다"("핑핑 푸드덕")고 하거나, "그대 무덤가에"("그리운 날") 맴돈다. 시대를 예감하는 문학처럼, 핑은 우리 곁에 먼저 와 있다. 황금알, 1만5000원. 진선희기자

는 진득한 걸음은 은유하는 듯 보인다. "허랑방탕 봄 한철 핑소리 들려 놓고/ 여름 가을 겨울을 묵언수행 중이다/ 날더러 푸른 이 허길 또 버티란 것이냐"고 했는데, 시 작업을 둘러싼 고행의 모습 그대로다. 새 생명을 품고 오는 봄의 기운은 수시로 출몰한다. "무슨 일 일어날 지 모르니까,/ 봄이다"('그러니까, 봄')라고 했을 때, 우리 거기에서 두렵음과 설렘을 동시에 느낀다. 봄은 제주 사람들에게 4:3이 연상되는 시기이면서 한편으론 창작자의 심적 부담을 드러내는 고통의 계절이다. 봄은 때때로 꽃으로 치환된다. 한라산 남쪽에 분포하는 기생성 한해살이풀인 '야고'를 제목으로 붙인 시에선 "여름월/내 노동은/ 중 하나 만드는 일"이라며 꽃을 피워내는 '산고'를 읊는다.

축
취 임
(사)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안재홍

제17대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표선중학교 제30회 동창회 회장 현 명택 외 회원 일동

축
취 임
(사)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안재홍

제17대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산업정보대학 07학번 일동

축
취 임
(사)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안재홍

제17대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권보 강영민 김승중 현창범 김성균 고상봉 송상권 김현섭

축
취 임
제13대 서귀포시 이장연합회 회장 **제7대 서귀포시 4-H본부 회장**

김법수 고성봉

김법수 회원님의 서귀포시이장연합회 회장 취임과 고성봉 회원님의 서귀포시4-H본부 회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역할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서귀포시이장연합회 회장 고 행 곤 외 회원 일동